

비디오텍스(Videotex)란 전화회선을 이용해서 정보센터에 축적된 문자나 도형으로 정보를 리퀘스트에 의해 이용자 단말(TV 수상기)에 표시시키는 시스템이라고 한다.

영국의 프레스텔이 1979년에 실용화된 이래 구미 각국과 일본에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이미 보급되어 있는 전화회선 이용이 가능하고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한 것과 센터에 축적된 정보를 수시로 검색해서 이용할 수 있는(수시 쌍방향 검색성) 것이 특색이다.

각국의 비디오텍스시스템을 소개해 보면

· 프레스텔(prestel · 영국) : 영국의 브리티쉬 텔레콤(BT)이 개발한 것. 76년에 개발되어 뷰데이터(view data)라고 불려졌다가 79년 프레스텔이라는 시스템 이름으로 세계 최초로

· 캡틴(CAPTIN · character and pattern telephone access information network system · 일본) : 문자 도형 네트워크라고도 한다. 84년에 상용화되어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이용 가능하다. 90년 봄 현재 10만대 이상의 보급을 보이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국제적인 분류방식으로 표현하는 경우 문자는 코드방식, 도형은 패턴방식, 송신은 하이브리드방식을 쓰는 시스템이다. 79년 실험 개시 시점의 표시능력 레벨1에서 미국의 NAPLPS방식을 고밀도 화면으로 표시할 수 있는 레벨5까지 5단계의 단말구분이 있다. 그밖에 전용 단말기 이외로 패킷컴 단말에 의한 이용도 가능하다. 또한 전화번호 안내 단말에 의한 이용도 검토되고 있고 CATV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 단말의 다양화가 추진되고 있다. 네트워크는 NTT(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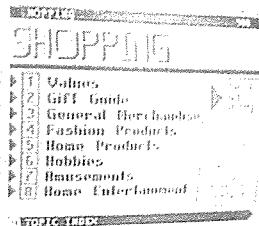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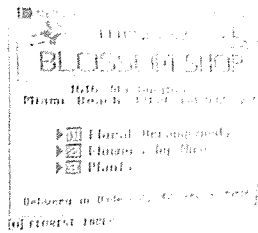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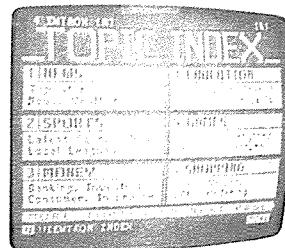
전자회선이용 문자·도형정보 제공 우리나라도 96년까지 300만대 보급

등장, 상용화이후 단말보급이 지지부진했으나 TV게임의 서비스 개시, 여행정보의 확충, 메일박스 서비스(전언판 문서 통신) 등이 계기가 되어 보급에 활기를 띠었다.

· 텔레텔(télel) : 프랑스에서 개발되어 전기통신 총국이 운영하고 있으며 82년부터 상용화되었다.

동국의 텔레텍스트인 안치오프와의 호환성이 뛰어나 전자전화장치의 개발과 함께 미니텔이라고 부르는 간이형 단말을 무료로 배부, 많이 보급됐다. 미니텔 단말은 홈쇼핑, 텔레뱅커 등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 나플르프스(Naplps · 미국) : 미국 표준 방식으로 82년에 제정되었다. 캐나다의 텔레폰을 기초로 하고 AT&T의 PLP(프레젠테이션레벨·프로토콜)방식을 믹스한 시스템. 도형 표시나 착색의 면에서 뛰어나고 텔레텍스트와도 호환성이 있으며 통신기능을 갖는 등의 특색이 있다. 단말 코스트가 비싸서 보급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한다.



◇미국 전신전화회사의 비디오텍스서비스의 화면.

본 전신전화회사)의 비디오텍스 통신망과 전화망을 이용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한국통신이 '하이텔(HITEL)'이라는 이름으로 비디오텍스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91년 7월부터 서울 여의도, 경기도 과천시, 광주직할시를 대상으로 1년간 시범서비스에 들어갔다. 한국통신은 91년말까지 3만5천대를 보급하고 96년말까지 전국에 3백만대의 단말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하이텔은 전용단말기 외에도 개인용 컴퓨터에 통신용 소프트웨어만 갖추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전용단말기는 한국통신이 개발한 데이터베이스인 천리안Ⅱ와 KETEL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리하여 96년말까지 1조5천억원의 예산으로 통신망의 건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서비스의 개발을 담당할 하이텔 사업단도 신설한다. **ST**

21세기
기술
어는
전반향상
속